

‘교육도시 해남’ 만든다

군, 연말까지 교육재단 설립 매년 30억원씩 출연 장학기금 500억 조성

해남군이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체계적·전문적 군민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13대 전략의 핵심과제인 지역사랑인재 육성 사업을 진행, 교육재단 설립·운영과 장학사업기금 500억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해남군 교육재단은 군이 출연해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올해 말 설립할 예정이다. ‘지역민과 함께 키우는 성장하는 교육도시 해남’이라는 비전으로 아동·청소년·군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다양한 장학사업 확대,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사업 지원, 민·관·학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비 및 운영비 외에 매년 30억원씩 출연해 2032년에는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민·향우 참여의 장학사업기금 조성사업도 확대해 기금 적립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또 차질없이 교육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임원 공모, 발기인 및 창립총회 등 행정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군의회 동의를 거쳐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4년에는 평생교육 업무를 교육재단으로 이관, 교육재단이 군민의 평생교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전문적인 교육 전담기구로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복안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교육재단은 해남군의 미래교육 정책의 한 중심축이 되어 해남형 장학모델의 확립과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민선8기 교육 덕분에 돌아오는 해남 만들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기자 노트

지방의회 정책관은 세금먹는 하마



박영길 서부취재본부 기자

지방자치법(제41조)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관 도입이 하반기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경우, 의원 정족수 22명의 2분의 1인 11명의 정책관을 둘 수 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6월 3일 우선 2명의 정책관을 임명하고, 8월 말까지 3명을 추가로 임명해 올해 총 5명의 정책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남은 6명은 2023년 총원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 제4조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사무를 본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시의회 정책관은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과 비슷한 일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 내용을 소속위원회에 제공하고 있는 기존 전문위원(5급)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에서 예산 낭비성 인사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실제로 정책관 11명 모두가 채워지는 2023년부터는 연봉(급여) 지급액이 매년 5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복리후생비), 업무경비, 국내여비 등도 추가된다. 이 밖에 정책관이 일할 사무실 마

련을 위해 예산 15억원을 들여 의회동을 증축해야 하고 업무비와 기타 운영비도 지출해야 하는데 모두가 시 예산에서 집행되는 인건비나 운영비다. A 시의원은 “정책관 도입의 성패는 정책관의 자질과 전문성에 기초해 가능할 수 있는데 목포시에 연고된 전문 인력 모집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실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며 “재선 이상 다선의원 대다수가 경험을 통해 공감하는 사안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직 시의원 B씨 역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전문위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될 일인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정책관제도를 도입하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지방의회가 의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밝혔듯이 정책관 임명을 강제적으로 뒤야 하는 조항은 아니다”며 “모든 비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직은 정책관 제도의 실효성을 선불리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제12대 목포시의회가 이 제도를 도입해 의원 역량 강화의 지표인 양질의 ‘의원 발의’를 얼마나 더할지 자칫,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kyl@kwangju.co.kr

팽나무 10리길·생태복원숲...신안군, 탄소중립 앞장

탄소중립 선언·시나리오 수립 1테마정원 조성 벤치마킹 모범

환경부 등이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적극 동참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50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눈길을 끈다. 신안군은 최근 기후 위기 극복 방안으로 산림 흡수원의 흡수능력을 강화하고 신규 흡수원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팽나무 10리길, 생활권 숲, 생태복원숲 등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해 지역기후와 생육환경에 맞는 수목자원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조경적 가치가 있는 기증목을 활용해 적절한 시기에 대량의 수목을 식재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질 꽃피는 1도 1테마정원 조성을 위해 초화류 및 수목재배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단가를 낮춰 구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식재 후에는 관수, 시비, 제초 등의 사후관리뿐



도초도 팽나무10리길.

만 아니라 바닷바람과 염해피해를 막기위한 방풍책까지 설치해 타 지자체의 현장견학 및 문의가 쇄도하는 등 모범이 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탄소중립 상쇄를 위한 도시숲 조성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는 등 신안군만의 특색있는 숲을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산림의 경제적·생태적 가치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산강사업단, 드론 활용 담수호 녹조 제거제 살포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최근 담수호(영산·영암·금호호)에 대형 방제 드론을 이용한 녹조 제거제 살포작업을 실시했다. <사진> 최근 영산·영암·금호호에서는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및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녹조 발생 전조증상이 확인됐다. 영산강사업단은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녹조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방제 드론을 통해 친환경 녹조 제거제 100kg을 살포하고, 담수호 전반에 걸친 수질관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김신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은 “담수호 3개소의 수질개선을 위해 연락수로를 이용한 물 순환과 녹조 제거제 살포를 통해 사후적 대



영보다는 선제적 예방관리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신설

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 가능 담례품 받고 세액 공제도

무안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농축특산품을 담례로 제공하는 제도이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이며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로 담례품을 제공받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군은 3개 핵심사업 분야로 ▲기부모금·홍보 ▲담례품 구성·선정 ▲기금활용 사업 발굴을 설정하고 사업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안군만의 특색 있는 담례품을 개발하고 기금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완도군,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 11.8%

완도군이 숙박업과 목욕장·세탁업 등을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업종별로 위생 관리 준수사항과 관장 사항, 위생 상태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그 결과 평가 대상 160개 업소 중 90점 이상 녹색등급(최우수)은 19곳(11.8%)에 그쳤다.

그 이하 80~89점은 황색등급(우수), 80점 미만은 백색등급(일반)으로 평가됐다. 군은 녹색등급 업소에 대해서는 최우수 업소 표지판을 전달해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고, 하위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